

세계 최초 알러지 저감 '오프리 밀' 영광서 재배

50ha 시범 재배단지 조성 내년 원곡 200t 첫 수확 군, 홍보 시식·평가회 가져

보리산업 특구로 유명한 영광군이 세계 최초로 알러지 저감 효과가 있는 '오프리 밀' 재배에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영광군은 올해 국제 시범사업으로 50ha 면적에 오프리 밀 재배단지를 처음으로 조성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지만 내년에 원곡 200t을 처음으로 수확한 후 재배면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오프리 밀은 농촌진흥청이 육종한 신품종 밀로 국내 특허에 이어 미국·유럽에서 국제 특허 등록을 받았다. 세계 최초로 유전자 변형(GMO)이 아닌 인공교배를 통해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제거됐



김준성 영광군수(맨 오른쪽) 등 관계자들이 16일 영광군농업기술센터에서 오프리 밀로 만든 짜장면을 시식하고 있다. <영광군 제공>

다. 주요 특성으로는 밀 알러지인 결손 성분인 '오메가-5 글리아딘' 등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밀가루 알러지나 식품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영광군은 시범 재배에 앞서 지난 16일 영광군농

업기술센터에서 지역 농협, 가공업체, 농업인 학습단체, 청년 농업인, 관련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홍보 시식·평가회를 가졌다.

평가단이 오프리 밀가루로 만든 짜장면을 직접 맛보며 향과 식감 등을 평가한 결과 일반 밀가루로 만든 짜장면과 별다른 차이를 느끼지 못했으며 식감과 선호도 부분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영광군은 특히 평소 밀가루 음식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 하던 사람들도 '시식 후 속이 편했다'고 말한데 대해 고무돼 있다.

밀 알러지가 있는 소비자들을 겨냥해 시장에 유통할 경우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영광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시식·평가회를 시작으로 기능성 오프리 밀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재배·생산·유통·판매를 연계해 지역 농가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해남 '스마트 관광도시' 박차 워크숍·주민설명회 의견 수렴

망갈 해남이 주민과 함께하는 '해남형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남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2021년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갖고 주민의견 수렴에 나섰다. 17일 밝혔다.

관내 관광업체를 비롯한 지역관광협회와 주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주민설명회는 2021년 해남형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에 따른 공모계획에 주민의견을 수렴,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마트관광도시의 모바일 하나로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관광환경을 조성한다는 개념이다.

해남군은 지역에 특화된 콘텐츠를 중심으로 지자체가 관광산업의 주체가 되는 '해남형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설명회에서는 코로나19 등으로 급변하는 관광 트렌드를 소개하고, 웰니스 기반 체류형 관광지 구축 계획과 해남형 관광벤처 육성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IT기반의 관광벤처기업 및 디지털 노마드 유치 등 해남관광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들을 제시했다.

해남군은 앞서 지난달 12일에는 스마트관광협회, 민간기업 등과 워크숍을 개최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앞으로 용역 보고회, 관련 업체 MOU 체결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모사업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며 "스마트관광 생태계 구현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항공산업 메카 도전' 무안 항공특화산업단 20일 첫삽

448억원 들여 2022년 준공 목표 항공기 부품·물류업체 입주 예정

무안군은 20일 망운면 무안국제공항 화물청사 앞에서 항공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 착공식을 갖는다고 17일 밝혔다.

무안 항공특화산업단지는 무안국제공항과 연결한 35만㎡의 부지에 총 448억원을 투자해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 곳에는 항공기 부품과 물류, 기내식 업체, 항공기 정비 서비스업 등 항공정비(MRO)를 중심으로 항공 연관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항공산업은 세계적인 항공기 증가 추세에 따라 시장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 상황 이후에도 항공기 정비뿐만 아니라 항공물류 등 관련산업도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항공 정비산업은 사업 초기에 막대한 투자비용과 높은 진입장벽 등으로 어려운 산업으로



무안 항공특화산업단지 조감도. 448억원을 투자해 2022년 준공을 목표로 20일 첫 삽을 뜬다.

핀하고 있다. 규정에 맞는 시설과 인력, 기술을 갖춰야 하며 기술력을 인정받기 위해 FAA(미연방항공국), EASA(유럽 항공기구) 등으로부터 인증도 받아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항공기 정비의 해외 의존도는 54%, 약 1조3000억원 이상에 이른다. 국내에 항공

정비를 외주를 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무안군은 항공특화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국내외 우수기업의 투자유치에 성공하며 명실공히 서남권 항공산업의 중심지로 우뚝서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항공정비(MRO) 기업인 국제항공정비(주)와 유럽의 우수한 항공기업인 Avia Solution Group(리투아니아)사 소속 항공정비 회사인 FLtechnics이 파트너로 입주할 예정이며, 서해지방경찰청 무안항공대가 기존 부지와 연결해 확대 입주한다.

김산 군수는 "무안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항공 신도시의 조성은 관련 산업단지 확대조성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착공식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대행으로 김상도 항공정책실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서삼석 국회의원, 김도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입주기업과 주민 대표 등이 참석한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재난재해 관리·의약품 배송 완도군, 스마트 드론 투입

완도군이 재난·재해 관리와 섬지역 의약품 배송 등에 스마트 드론을 투입한다.

17일 완도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완도해양경찰 전용 부두에서 경찰·해양경찰·군부대 등과 함께 스마트 드론 운영 시스템 시연회를 개최했다.

시연회에서는 해상으로 도주하는 불법 밀입국자를 드론으로 실시간 관제하면서 육상에서 검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 바닷물 1ℓ를 채수해 수질을 검사하는 과정과 물품 배송용 드론을 이용해 의약품을 싣고 긴급 전달하는 과정도 선보였다.

완도군은 스마트 드론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재난 및 사고, 범죄 상황 발생 시 현장 상황을 112와 119, 해양경찰, 군부대 상황실로 즉시 전송할 수 있게 됐다. 해상에서 접근하기 힘든 양식장이나 수심이 낮고 오염된 지역의 수온 변화·적조 피해 예방 활동에도 드론을 활용한다. 의료시설이 열악한 낙도 지역에 드론으로 의약품을 배송하는 등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완도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난재해관리 스마트 드론 운영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며 "도서 지역에 드론 배송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드론 활용도를 더욱더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신안 8.2GW 1단계 해상풍력 협의회 개최

지자체, 한전 등 참석 협력 다짐

'신안 8.2GW 1단계 해상풍력 협의회'가 17일 전남도청에서 열려 유관기관간 협력을 다짐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김종식 목포시장, 박우량 신안군수를 비롯해 한전과 각 발전사 대표 12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신안지역 해상풍력 발

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상호 공동 협력사항 등을 논의했다.

특히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한 전남형 상생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내 해상풍력 기자재업체 유치에 상호 협력하고 지역 해상풍력 부품, 설비 제조기업의 생산제품 구매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향후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주민 이익 공유 방안, 정부 정책 마련과 제도 개선 건의 등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이번 협의회는 그동안 실무단위에서 꾸준히 논의된 틀을 지자체와 한전, 발전사 사장단이 처음 한 자리에 모여 신안 해상풍력 1단계 발전사업의 성공이라는 공동 목표와 의지를 확인한 자리로, 지자체와 발전사 간 자율적인 협력 강화라는 모범적인 선례를 만들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해상풍력으로 대표되는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과 포스트코로나 극복의 그린뉴딜의 핵심 사

그린알로에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